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상영작 공개

“ 일상 속의 폭력
사실적 미장센으로

-폭력의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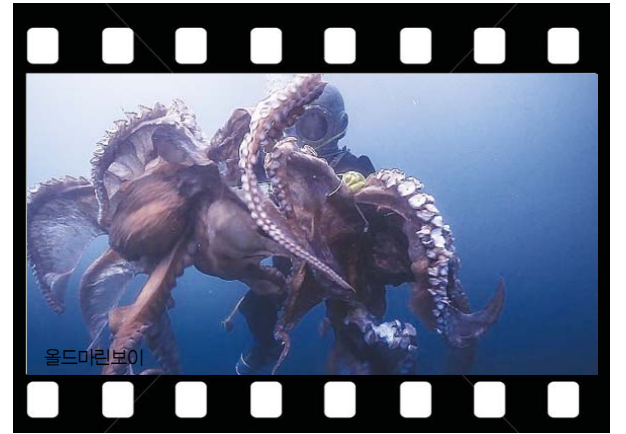


“ 남북분단이 남긴
그리움 담아내

-그리다-

“ 가족을 위해...
이시대 아버지 이야기

-올드마린보이-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11월 첫째 주 영화로 일상 속의 폭력을 이야기하는 '폭력의 씨앗' 알지 못 했던 세 가지 그리움 '그리다' 이 시대의 아버지의 이야기 '올드마린보이'를 상영한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 대상과 CGV아트하우스상을 수상한 '폭력의 씨앗'은 군 복무 휴가를 나온 주용이 하루 동안 겪는 사건을 통해 폭력이 인간 내면에 스며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임태규 감독의 첫 장편 영화로 일상 속 폭력을 촘촘한 내러티브와 전개, 사실적인 미장센으로 담아냈다.

또한 감독은 영화 '사물의 아들'로 부터 영감을 받아 4:3 화면비율과 함께 핸드 헬드 기법으로 촬영하여 어딘가 갇혀있는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OST를 사용하지 않아 영화의 긴장감을 더했다.

'통일방편'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평생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애잔함을 담았으며, '관계의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은 이산가족 인터뷰 촬영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본다. 또 '립동미'는 어린 시절 탈북해 남한에서 어른이 된 동미와 북에 두고 온 아버지와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평양방편'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을 평생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애잔함을 담았으며, '관계의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은 이산가족 인터뷰 촬영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본다. 또 '립동미'는 어린 시절 탈북해 남한에서 어른이 된 동미와 북에 두고 온 아버지와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제9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작 '올드마린보이'는 가족을 위해 서러면 60KG의 무게의 잠수장비를 짊어진 채 365일 깊은 바다로의

잠수를 반복하는 '머구리' 박명호씨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감독의 신작으로 박명호씨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아버지와 가족애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에게 던지는 작품이다. 박진감 넘치는 수중촬영과 아름다운 미장센 등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폭넓은 연령층의 관객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 홈페이지 (<http://theque.jif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청춘이
일러주는
문화의 탈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학과장 이진영)는 2017년도 졸업 작품 전시회 '청춘 일탈(청춘이 일러주는 문화의 탈)'을 오는 5일까지 전주대 다목적홀에서 갖는다.

전주대 산업디자인학과와 졸업 작품 전시회는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마련된다. 이를 위해 연구의 주제는 지역에서 발굴하고, 지역 지자체와 산학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현실적인 연구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졸업연구 발표를 이어 온 이 학과는 올해는 '전북도 대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연구'에 주목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공과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도내 대표관광지 전주시 덕진공원, 남원시 광한루, 장수군 승마체험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환경개선 디자인 연구를 수행했다.

전주대 산업디자인과 졸업작품 전시회
'청춘일탈' 5일 대학 다목적홀에서

연구 과제는 대상 지역에 대한 공공시설 및 환경디자인과 실내디자인 그리고 스포츠 레저 및 문화상품디자인 등을 주제로 삼았다.

이번 졸업전시회 이후엔 디자인연구 대상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별도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지역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졸업전시회 이후에는 디자인연구 대상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별도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디자인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지역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 송 교수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지역 디자인 인재양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대시습놀이보존회 '바손' 화합·부흥 기원

5일 국립무형유산원 열쑤마루 대공연장서 무대

전주대시습놀이보존회(이사장 송재영)는 전주대시습놀이의 화합과 부흥을 기원하는 국악 대공연 '바손'을 연다.

오는 5일 오후 4시 전주국립무형유산원 열쑤마루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심사비리 및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과 구설수로 내용을 겪으며 구심점을 잃고 와해 위기까지 몰렸던 대시습놀이보존회가 조직을 추스르고 새로운 비상을 다짐하는 무대다.

공연명 '바손'은 순 우리말로, 우리 조상들이 후원이나 방안에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가정이 무사태평하길 비는 형태를 말한다.

역대 장원자와 임·회원들이 함께 출연하여 '2018대시습놀이'를 향한 힘찬 의지를 다지는 화합의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송재영 이사장은 "대시습보존회는 올해 잇따른 악재로 흥역을 치렀다. 그 아픔들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도 있었고,



왜곡되고 단절된 시간이 가져다준 것도 있었다"면서 "지난 일을 반성하고 교훈 삼아 새로운 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막걸리아리랑...' 내일 전주 종합경기장서

한문화국제협회(이사장 김관수)는 '제2회 막걸리아리랑 김치쓰리랑 문화축제'를 오는 4일과 5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전주김치 체험관과 유용화 전라의 한 축으로 우리 삶을 친근하게 해 준 막걸리와 융합해 '김치와 막걸리의 도시 전주'의 가능성을 실증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다.

이를 토대로 전주음식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이끌어갈 미식축제를 꾀한다는 목표다.

이번 축제는 축제 기간 타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주맛 체험단'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막걸리황제상차림과 김장체험 등 꾸러미 상품이 제공된다.

또 3일 전야제인 한문화예술단의 나눔콘서트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NH 농업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축! 전주매일 창간

여러분의 곁엔 늘 **농협**이 함께합니다

NH 장수군농수산물유통센터

NH 장수군조립공동사업법인

•농협장수군지부 지부장 박경준 •장수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광점용